Vol. 33
2013. 9. 13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 신호

지난 9월 3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7개국(G7) 하반기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세계경기를 견인하던 신흥시장국의 경우 무역적자 확대와 자금유출,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유로지역 2/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3%로 2011. 4/4분기 이래 6분기 동안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경제규모가 큰 독일 및 프랑스가 각각 0.7% 및 0.5% 성장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6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하여 55.7을 기록하였으며 유로지역도 7월(50.5)부터 PMI 기준치(50)를 상회하고 8월에는 51.5를 기록하며 장기침체에 허덕이던 제조업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유로지역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 기관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유럽 증시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36년 만에 가장 많은 유럽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경제불황 타개책을 내놓았던 일본의 경우 2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달 내각부가 공개한 속보치(2.6%)보다 상승한 3.8%(연율기준)를 기록하였으며 8월 PMI가 상승(50.7 → 52.2)하고 설비투자 증가율(1.3%)도 6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OECD는 선진국 경제회복과 더불어 암울한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현 고용상황이 구조적 실업문제로 확대된다면 선진국 전반에서 관측되는 고실업률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와 세제개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7월 실업률 – 미국 : 7.4%, 유로지역 : 12.1%, 일본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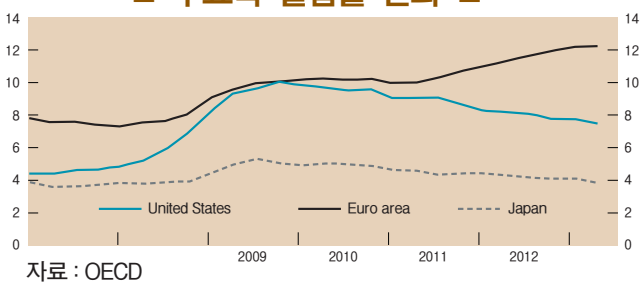
이에 따라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며 고용상황의 개선속도를 좀 더 지켜보고 경기흐름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주요국 GDP전망 ■

	2012.4Q	2013.1Q	2013.2Q	2013.3Q	2013.4Q
미국	0.1	1.1	2.5	2.5	2.7
일본	1.0	3.8	2.6	2.6	2.4
유로3국	-2.0	-0.8	1.6	1.3	1.4
중국	7.8	6.6	7.0	7.2	8.1

자료 : OECD, 전기대비 연율

■ 주요국 실업률 변화 ■



자료 : OECD

Vol. 33
2013. 9. 13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세상 둘러보기

추석과 관광수요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고향에 가족들이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며 지내는 명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음력 8월 15일을 추석 및 중추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수요시기가 겹치고 있다.

• • •

최근 추석연휴 기간에 가족단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연휴에 주요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예약한 사람은 16만 3천여 명으로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 사상 최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제선 항공예약률도 평균 85%를 웃돌고 있으며 이 중 유럽과 호주 노선은 98% 이상으로 사실상 만석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쳐 8일간의 연휴가 있었던 2012년의 추석기간에만 10만 여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에도 10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부산의 관련업계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듯싶다.

좋은 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 피터드러커

Vol. 33
2013. 9. 13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 **채권금리 등락 반복**

→ 신흥시장국 금융위기 우려 및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 여지 등 글로벌 시장위험 정도에 따라 금리 등락 반복

▶ **코스피 지수 2000선 회복**

→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지난 5월 31일(2001.05) 이후 약 3개월 만에 2000선 돌파

▶ **달러화 강세**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연설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금리

	2012년말	2013. 7월말	2013. 8월말	9/6	9/9	9/10	9/11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6	2.66	2.66	2.66	2.66	2.66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9	2.66	2.71	2.69	2.70	2.68
국고채(3년)	2.82	2.92	2.88	2.99	2.95	2.97	2.94
회사채(3년, AA-)	3.29	3.36	3.25	3.37	3.33	3.36	3.33
회사채(3년, BBB-)	8.80	9.01	8.96	9.08	9.04	9.07	9.03

◉ 주가

	2012년말	2013. 7월말	2013. 8월말	9/6	9/9	9/10	9/11
KOSPI	1,997.1	1,914.0	1,926.4	1,955.3	1,974.7	1,994.1	2,003.9
美다우	13,104.1	15,499.5	14,810.3	14,922.5	15,063.1	15,191.1	15,326.6
니케이225	10,395.2	13,668.3	13,388.9	13,860.8	14,205.2	14,423.4	14,447.5
상하이종합	2,269.1	1,993.8	2,098.4	2,140.0	2,212.5	2,238.0	2,251.7

◉ 환율

	2012년말	2013. 7월말	2013. 8월말	9/6	9/9	9/10	9/11
원/달러	1,071.1	1,113.6	1,109.0	1,092.5	1,084.5	1,084.5	1,086.0
원/100엔	1,247.5	1,135.4	1,129.2	1,091.8	1,096.2	1,091.8	1,080.5
원/유로	1,416.3	1,476.7	1,470.6	1,435.1	1,443.0	1,442.2	1,439.1
원/위안	171.9	181.6	181.5	178.7	179.0	177.8	177.3
엔/달러	85.86	98.08	98.38	100.18	99.93	99.67	100.41